

필요성이 곧 가능성도 아니고, 가능성이 곧 현실성도 아니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10월은 양돈인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돼지값이 서울 3개 도매시장에서 지육 기준으로 1kg당 1,700원대까지 곤두박질을 하였고, 분뇨처리 단속 등 불안한 한 달이었다. 돼지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 인건비, 톱밥값 등 생산비는 꺾충 뛰어들러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월은 윤달이라 결혼 등 잔치도 거의 없고, 법인세 중간 예납과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우선 수매비축을 해서 불황을 해결하는, 그러나 아주 해결하여 주지는 않는 방법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치유보다 증세의 즉각적인 소실만을 바래왔고 그렇게 대처하여 왔다.

이번 불황을 맞아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올바르게 가고 있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당뇨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뚝단배는 바람의 방향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뚝의 방향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르듯이, 단지를 만들고 축사시설을 다시 해서 구조개선을 한다 해도 각기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돈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 ‘뭉치면 산다’, ‘하면 된다’는 생각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곧 가능성은 아니며, 양돈산업은 조금 노력만 하면 국제 경쟁력이 있고 잘만 하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곧 현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없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꿈은 사람이 매달아 놓은 멧돌을 머리로 받고 죽는다고 한다. 우리는 꿈을 미련하다고 한다. 멧돌을 머리로 받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실망만을 초래할 뿐이며, 현실의 주어진 여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양돈산업이 수입개방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이 앞으로 더 큰 실망과 자포자기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이번 불황을

맞아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올바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당뇨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돛단배는 바람의 방향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돛의 방향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르듯이, 단지를 만들고 축사시설을 다시 해서 구조개선을

한다 해도 각기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산 돼지고기가 훨씬 맛이 있고 유해물질(항균제,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해 안전하다는 신뢰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비싼 데도 일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소나기식 바겐세일은 별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 갈증의 해결은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꾸준히, 쉬지 않고 먹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육가공 제품의 소비확대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 소비홍보는 시장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값이 떨어질 때 위기 극복용은 부수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이다.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을 내리는 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 위생관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양축가의 노력 외에도 정부의 공동 방역 대책과 특히 원초적으로 사료값이 비

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함께, 사료의 물류 비용을 비롯한 관리비, 영업비 등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후자는 자가배합사료 제도가 오히려 비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고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을 막아놓을 필요가 없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생산비에 낮은 돈가(豚價)시대가 계속되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축진기금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고, 연말부터 회복을 기대하지만 모돈수의 증가와 사료값의 불안 등은 양돈경영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고, 특히 신규로 설립한 단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생산비를 내리는 일,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는 일(안전성),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 시장을 넓히는 일 등을 더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통증을 없애는 조치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